



(왼쪽부터)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 회장, 신정훈 전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손금주 의원.

김병원·신정훈 '적격' 판정

벌써 뜨거운 '나주·화순'

민주당서만 예비후보 5명...총선 최대관심

'지역구 현역' 손금주도 1월중순께 가세

21대 총선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남 나주·화순 선거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이른바 '거물급' 인물들이 잇따라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최대 관문인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한치 앞을 예측하기 힘든 혼전으로 빠져들고 있다. 민주당 후보를 포함해 나주·화순 선거구에는 벌써 5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신정훈 전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지난 27일 나주·화순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뛰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 공식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1차 공모에 참여한 신정훈 전 비서관에 대해 나주시장 시절 지원금 특혜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점을 들어 계속심사 대상으로 이날 적격 판정을 내렸다.

신 비서관은 지역에서 농민운동을 시작해 무소속으로 전남도 의원에 당선돼 정치에 입문했고, 재선의 나주시장과 제19대 국회의원(나주·화순)을 역임했다. 2017년부터 1년여 동안 대통령 비서실 농어업비서관을 지낸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전남도지사직에 도전했지만 민주당 경선에서 현 김영록 지사와 장만채 전 교육감에게 뒤져 1차 탈락했다. 올해 4월부터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

역정책공약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예비후보 등록 뒤 "내년 총선은 나주·화순 지역발전 절호의 기회로 집권여당의 힘 있는 일꾼을 뽑아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전 비서관과 함께 민주당 3강 후보군으로 꼽히는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 회장도 이날 민주당에서 '적격' 판정을 받고 곧바로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선거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2차 공모에 참여했던 김 전 회장은 별다른 이견 없이 검증위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 출신으로 1999년부터 남평농협 조합장을 13년 동안 맡았던 김 회장은 파머스마켓 활성화, 농업인 복지증진사업, 농산촌개발사업 등 왕성한 활동으로 주목받았고 이후 농협무역 사장, 농협양곡 사장에 이어 2016년 농협중앙회장에 당선됐다.

그는 "농협중앙회 회장으로서 대한민국CEO 브랜드평판 4위에 올랐던 전문성과 경영지식을 총동원해 나주·화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호남정권 재창출의 디딤돌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 2명과 함께 지역구 현역의원인 손금주 민주당 의원도 국회일정이 마무리 되는대로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선거전에 본격 뛰어들 예정이다.

손 의원은 임시국회 일정이 마무리되는 1월 중순 이후 본격적인 총선행보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71년생인 손 의원은 서울대 국어국문학과와 같은 대학 법과대학원 석사를 졸업하고,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

여기에 역사 출신인 김승철씨도 일찌감치 민주당 검증위를 통과한 뒤 예비후보로 등록해 지역을 누비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전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보전특보와 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국민통합부위원장을 지냈다.

목포시 부시장과 진도군 부군수를 지낸 이인근 전 전남도 국장도 민주당 검증위 통과와 함께 27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치열한 민주당 후보들 사이에서 민주당 후보로 안주용 민주당 공동대표가 예비후보 등록 뒤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다. 그는 전라남도 의원을 역임했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29일 "이러한 결선이나 다음없는 민주당 경선을 누가 통과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구도가 형성되면서 나주·화순이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논평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與, 공수처법 이탈표 단속...“강제 당론, 누구도 이탈 안돼”

오늘 표결...주승용 부의장 비롯해 박주선·김동철 등 4+1 내 이탈표 가능성

선거법 개정안이란 최대 고비를 넘긴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막판 표 단속에 나선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30일 본회의에서 공수처 법안 표결이 이뤄질 예정인데 분위기는 선거법 개정안 표결 당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선거법 개정안에서는 의석수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맞아 공조했던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나 민주당 내부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주말 내 4+1협의체를 비롯해 당내 소속 의원들과 긴밀히 연락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의 숙원이었던 검찰개혁의 분수령이 될 30일 본회의에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

자를 비롯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민주당 소속 장관들도 100% 출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전략이다.

당내 반발을 누르기 위한 '공수처 찬성'은 강제 당론이다"라는 강경 발언까지 나오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실상 강제적 당론"이라고 못박으면서 "당내 누구도 이탈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은천·김태섭 민주당 의원 등이 공수처법의 독소조항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피력해온 것을 감안한 압박으로 풀이된다.

민주당과 공조해온 여야 '4+1' 협의체에선 바른미래당 소속 주승용 국회 부의장이 공수처 법안의 독소조항을 지적하며 반대입장을 공개표명했다. 특히 주승용 부의장에 이어, 박주선·김동철 의원 등 '4+' 협의체에 포함된 바른미래당 당권파 소속

의원들이 잇달아 공수처 반대 소신을 밝히고 있다. 반대 의원은 3명 이상으로 전해졌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는데 왜 공수처가 더 필요한지 이해가 안되고 나는 애시당초 반대입장"이라며 "만약 지금 공수처가 있었다면 현재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할 때 그 수사검사들을 공수처에서 뒷조사하고 그랬을 것"이라고 반대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에도 반대하는 사람이 3명 외에 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명투표에서 내년 총선을 위한 공천을 신경쓸 수 밖에 없는 민주당 의원들이나 진보진영과 호남 지역의 강한 '검찰개혁'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선 이탈표가 거의 없을 것인 전망이 우세하다.

대안신당 광주시당 창당...“한국 정치 판 바꾸겠다”



대안신당 광주시당 창당준비위원회가 2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에서 창당발기인과 지지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정치 판을 바꿔보자'며 대안신당 광주시당 창당대회를 열고 있다.

시당위원장에 최경환 선출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대안신당이 29일 광주시당 창당대회를 열고 한국 정치의 판을 바꾸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대안신당 광주시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에서 광주시당 창당대회를 개최했다.

창당대회는 유성엽 중앙당창당준비위원장과 장병완·최경환·장정숙·천정배 의원, 김명진·김성환 예비후보 등 발기인, 지지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회는 대안신당 경과보고, 내빈소개, 중앙당 창당준비위원장 축사에 이어 입시의장과 위원장 선출 순으로 진행했다.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무너

져가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대안신당이 3대 개혁과제인 공공, 노동, 교육개혁 통해 반드시 살려내겠다"며 "대안신당이 거대 양당의 폐해를 극복하고 이들을 견제해 대안신당 중심의 정치발전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창당대회에서 대안신당 광주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된 최경환 위원장은 "제3세력 통합의 구심점이 되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위원장은 "광주시당 창당대회는 제3정치세력 결집의 시작"이라며 "대안신당은 김대중 정신의 온전한 계승자로 5·18 광주정신의 충실한 실천세력으로 제3정치세력의 결집과 통합을 통해 내년 4·15총선에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 당권파, 민주평화당, 무소속 세력들에게 제안한다"며 "선거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대안신당과 함께 제3세력 통합을 위한 원탁회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